

2018년 11월 13일, 제주시 외도2동 월대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강옥자(여, 1941년생, 제주시 외도2동)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나서 결혼 후 외도2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일곱 아들을 둔 남선비가 육지에 장사를 갔다가 노일저대를 만나서 데리고 돌아왔다. 노일저대는 큰부인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점을 쳐오라고 하고는 점쟁이로 변장 후 일곱 형제의 간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자 막내아들이 형들의 간을 갖고 오겠다고 한다. 이후 막내아들이 산돼지의 간을 가져갔는데 노일저대는 먹지 않고 이불 밑에 숨겨 두는 것을 보고 흥계를 막내아들이 알린다. 어머니를 살리고 노일저대는 벌을 받아 온몸이 찢겨서 온갖 도구와 해산물이 되었으며 막내아들은 문전신이 된다.

[제보자] 남선비허고 부자가 살았인디. 아들 일곱 성제 살았인디 남선비가 어디 육지 장사인가 뭔가 나갔는디 노일저대를 만나가지고 가졌던 거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노일저대가 같이 온 거라. 같이 와서 이제 배에 내릴 때 보니까 아들 일곱이 주르르 다 잇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도 겁이 나서 아들들 이제 영 넘어오젠 하니까 족은아들이 칼선다리인가 뭔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못 넘어오게. 그런디 그 여자가 워낙 머리가 좋앙 넘어서 집에 들어갔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각시도 본처도 같이 갔인디 남자가 먼저 들어오니까. 아, 큰각시가 집에 잇엇구나.

경허영 온디. 집에 들어가니까 일곱 성제가 같이 사니까 이것들을 죽여 불어야 자기가 본 자리에 앉을 거니까. 큰각시 보고

“우리 목욕이나 가게마씸.”

막 하니까

“난 목욕 같은 거 안 허난 안 가커라.”

헷인디 막 같이 가겐 꼬셔낫어. 게건 나가 등도 밀어내고 머리도 건져내곡 허肯 허난 큰어멍은 들어간 거라. 목욕을 여기서 나가 등 밀어내肯 헌디 그 물더레 거려밀려 부니까 죽어분 거라. 경허니까 돌아완.

같이 사는디 맨날 밥그릇이 큰아들 먹던 거 족은아들 주고 아방신디도 가고 아버지한테도 가고. 지네 어멍 한 거는 완전 틀리지. 경허니까 이상하다고. 경헌디 이놈의 여편네가 이것들을 죽여야 자기가 차지할 거니까 뭔 예산을 헷인고 허영 자기가 배 아팡 죽은 시늉을 햇어.

아무디 강 점을 허민 자기 좋은다 허는 이야기 나올 거다. 경허니까 아이들은 간 거라. 벌써 그년이 그디 강 뭐 둘러 쌍 점쟁이 노릇을 헌 거라.

“사람의 애를 먹으면 그 병이 좋아진다.” 경허니까 차마 왕
“뭐렌 골아니?”

허난 차마 그 말을 못헌 거라. 경허니까 또 이제 죽어가는 소리를 아무래도 점쟁이신디 가와야 텐데 허영 간 거라. 또 그년이 먼저 강 잇엇당 애를 먹어야만 병이 난덴 허니까 경허니까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애를 족은아들이 나가 가그네 차마 어머니, 아버지 손으로 애를 못 내니까 나가 강 헤오肯.

[조사자] 형님들 애를 헤 오肯예?

[제보자] 형님들 다 데리고 산으로 가는디 산돼지가 새끼 일곱 개를 돈 돼지가 잇이난, 이놈을 잡아가지고 애를 가지고 집에 앗어. 와그네

“이걸 먹읍서.”

허난 얼른 먹질 않는 거라. 이걸 먹어야 어머니가 병이 낫일 건디
“먹읍서.”

허난 아니 ㅎ꼼 잇당 먹으肯 허멍 먹은 척 주둥이에 피만 막 데기고 그건 다 곱정. 이불 아래 곱젖당. 경허난 아들들이 숨어들어 본 거지.

경허니까 그걸 먹지 안허영. 경허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 아들들이. 경허영 아들들이 ‘어머니를 이 어른이 죽였구나.’ 경허영 이제 어멍신디 거길 가리키렌. 어머니 죽인 자리를 가리키렝 허영 강 시체를 건져내가지고 뼈마다 살아나는 옛날엔 뭐가 잇엉 그걸 해서 어머닐 살렸답니다.

벌을 줘가지고 이제 노일저대는 죽고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헷냐 허믄은 그 알턱아린 돌도구리를 만들어가지고, 골박새기는 돌도구리를 만들고, 손은 쉘스랑을 만들고, 발은 팽이를 만들고, 머리는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나는 해초, 그게 뒤 불고, 눈은 빤 던지니까 망원경 그거 뒤 불고, 코는 뭐 무신 배에 무신 거

허는디 배에 노 젖일 때 흔들지 않게 허는 그걸 만들고, 경허고 또 이제 가슴은 돌랑 대껴 부난 지금 해삼이 되고, 또 자궁은 돌랑 대껴 부난 밑구녕은 돌랑 대껴 부난 말미잘, 경허고 자궁은 돌랑 던져부난 전복이 됐다 해서 전복은 제에 안 쓴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복은 제에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르방은 그 죽으니까 뭐허고, 아들 그 일곱 성제는 하늘에 칠성별이 됐답니다. 일곱 성제에서 칠성별이 되었다.

경허고 족은아들이 허는 말이 ‘아버지는 올레 대문에서 뭘 받아먹고 자기는 문전에서 받아먹겠다. 형님들은 칠성에서 먹읍서.’ 해서 그 법으로 그런 제를 지낸다고.

문전제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엔 생각허는디, 족은아들. 족은아들이 워낙 똑똑 해서.

- 핵심어: 노일저대, 남선비, 족은아들(막내아들), 애(간), 문전신, 산돼지, 점쟁이, 일곱 성제(일곱 형제), 칠성별, 문전제, 전복, 큰각시(본부인), 목욕